

English 발칙하고도 뼈딱한 동화 읽기

변용란 | 번역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고전 동화' 보다 요즘 선보이는 창작 동화가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더 끄는 이유는 아마도 '공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도대체 현실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주나 왕자의 이야기라든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황홀한 이야기를 뿌듯한 희망으로 품기엔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하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 많고 불만과 호기심 투성이인 투덜이들에게 딱 맞는 동화가 여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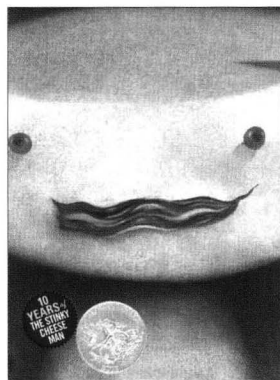
출간 10주년 기념 특별 판형으로 재출간된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은 첫 얼굴부터 조금 황당하다. 10주년 기념 판형임을 알리는 작은 동그라미 안의 글자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표지에선 제목도 알 수가 없다. 호기심에 표지를 넘기면 날개에는 우선 양장본 겉표지를 벗겨내서 안을 제대로 보라는 글이 써 있다. 그리고 겉표지 안쪽 면에 실린 허무하기 짝이 없는 소동 소년의 이야기가 끝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주년이라면서 대체 뭐가 달라진 게 있냐고 따져 묻는 질문들이 가득하다. “대체 누가 양장본 겉표지 따위에 신경을 쓴단 말이람?”이란 꾸얼거림과 함께, 면지를 넘기면 난데 없이 빨간 암탉 한 마리가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고, 곧 책의 이야기꾼인 책이 나타나, 아직 네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린다. 아직 책이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나. 아랑곳하지 않고 떠드는 암탉의 말문을 막으며 책이 외친다. “집어 치워, 여긴 제목이 올 자리야!”

커다란 검은 글씨로 '제목 있을 자리'라고 쓰인 속표지를 넘기면, “이 책을 나의 가장 절친하고 특별한 친구에게 드림”이라는 글귀가 커다란 글씨체로 거꾸로 인쇄돼 있고, 또 그 아래 책의 투덜거림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거꾸로라고? 알아, 알아. 선물받을 사람 이름을 적는 페이지 따위에 누가 신경 쓴다고 그래? 정 보고 싶으면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되잖아!” 글씨를 제대로 보려면 책을 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물구나무서기를 하란다.

이어지는 머리말은 물론이고, 본문에 소개되는 <겹쟁이 꼬꼬 암탉> <공주와 불링 공> <정말 미운 아기 오리> <또 다른 개구리 왕자> <빨간 반바지> <책과 콩나무의 낭패> <신데렐라펠스틸트스킨, 또는 멍청하게 굴다 풀딱 망한 소녀 이야기> <냄새 고약한 치즈맨> 등의 이야기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하나 같이 뼈딱하게 어깃장을 놓는다. 또한 중간으로 옮겨진 면지와, 일러스트처럼 제시된 '끝'이라는 활자, 뒤표지 바코드까지 도통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양장본 겉표지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부록 이야기와, 책에 대한 끊임없

는 불평, 난데없는 이야기의 끼어들, 책이라는 형식이 지니고 있는 권위 깎아 내리기,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아 허무하기까지 한 동화의 패러디 기법 등은 유쾌하고 즐겁지만 한편으론 발칙한 불쾌감과 함께 허탈함도 안겨준다. 어른이 되고 나서 문득 동화의 세계가 새삼 그리워지게 만드는 아련한 기대감과 해피 엔딩의 신화가 이 책에서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감동이나 교훈, 도덕적인 깨달음 같은 것을 기대했다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저 냉소적인 비꼬기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독자라면 묘한 뒷맛의 여운을 곱씹으며, 전혀 예쁘지 않되 독특하고 기발한 그림과 활자로 구성된 책장을 다시 뒤적이게 될 것이다. 따지걸기 좋아하고 모든 걸 뼈딱하게 한 번 꼬아보길 좋아하는 냉소적 허무주의자들에게 공연히 흐뭇한 웃음을 선사하는 책이라고나 할까. ㉨



원제 《냄새 고약한 치즈맨과 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The Stinky Cheese Man and Other Fairly Stupid Tales》
저자 존 시즈카 Jon Schiscka 글 | 레인 스미스 Lane Smith 그림
출판사 Viking

Japanese 지상 최고의 행복, 사랑

김지효 | 번역가

인간은 이성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든다. 그것도 특정 상대에게만. 그 특정상대는 첫눈에 반한 상대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는 분명 친구였는데 곁에 서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콩닥거리게 되는 상대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또는 그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화둥둥 내 사랑' 이다.

이쯤 되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 행동, 생각, 말 등등 사랑하는 그대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인다. 단점조차 장점으로 보일 정도이니 말이 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는 그대의 단점은 안 보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격렬한 연애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 이성간의 사랑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인간 특유의 심리구조를 통해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철학에세이다. '철학!' 하면 단어가 주는 느낌에 움츠러들어, 상당히 묵직한 테마에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염려는 접어두어도 좋다. 다양한 테마, 산뜻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고, 읽다보면 공감하게 되는 대목도 여러 군데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이 책은 자신과 상대방과의 신기하고 오묘한 관계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어나가고 있다. 자신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내가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달리 표현하자면 열이면 열 사람,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연애감정·이성간의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플라톤, 융, 프로이트, 니체, 루소, 키에르케고르 등 여러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이 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사상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한때 그들도 경험했던 사랑이야기가 그려져 있어 각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작품소개도 흥미진진하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를 통해서 융과 프로이트의 세계를 이해하고,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인》, 괴테의 《파우스트》 등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대목에서는 이 작품들을 제대로 한 권 다 읽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남을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기폭

제 역할을 한다. 이성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그랬던 사람이 사랑의 열병을 앓고 나더니 위대한 철학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었다. 사랑의 에너지가 한 인간을 이렇듯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지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관문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짓되지도 위선적이지도 않으며 타산적이지도 않은 무상無償의 사랑이어야 한다. 즉 순도純度가 높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의 열병', '실연', '과혼' ... , 뭐라 형용할 길이 없을 만큼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나 철학이든 예술이든 자신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



원제 《사랑하는 힘》을 철학하다

저자 우메카키키라

출판사 PHP연구소

France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1.1.1

벼룩은 동물계의 높이뛰기 챔피언이다. 자기 몸보다 무려 140배나 높이 뛸 수 있다. 하지만 이 벼룩을 낮은 병 속에 며칠 동안 가둬 두면 병 높이 정도밖에는 뛰지 못하게 된다. 병 속에서 천장에 부딪히며 좌절을 겪는 동안 자신이 훨씬 높 이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뚜껑을 열어 두어도 벼룩은 병 높이에서만 제자리 뛰기를 할 뿐 병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

벼룩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의욕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는 환경이나 능력 보다 앞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가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기에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에 앞서 한번쯤 "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두 정신과 의사가 지은 《자기 평가 L'estime de soi》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신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먼저 '무조건 적인 자기에'는 세상의 적대자들에 대항하는 힘을 주며 실패를 경험한 뒤 스스로를 복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이해'인데 이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된다.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다. 이는 무언가를 실행하고 행동하는 힘을 준다. 이 세 요소는 상호 작용 하면서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좌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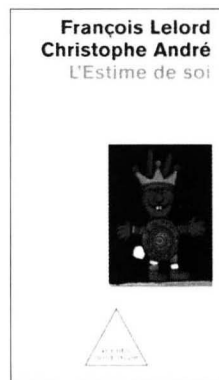
저자들은 상담했던 환자나 소설이나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해 유형을 분류하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며 그들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소심증이나 불만족, 불안, 우울증, 콤플렉스 등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자기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태도 다. 불행하게도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자율성을 빼앗는 독단적인 부모, 아이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부모,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 성적·육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등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기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성격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진단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책은 친절하게도 첫째 장에 자기 만족도를 잴 수 있는 자기진단법

을 싣고 있다. 독자는 자기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뒤 성격의 유형별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이어서 자기만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유년기와 성인기의 무엇이 그것을 좌우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외모 콤플렉스 등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쳐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남에게 분석되는 것을 싫어하며 스스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서툴고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조건들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일 수 있다. 어떤가, 지금 한번쯤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해 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해보고 싶지는 않은가? 📖



원제 《자기 평가 L'estime de soi》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Christophe André),
 프랑수아 틀로르(Francois Lelord)
 출판사 Odile Jacob

Deutsche 천사를 절망케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김재민 | 시인, 번역문학자, 고려대 독문과 교수

내 눈앞에는 지금 파울 클레의 그림 <앙겔루스 노부스>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천사'라는 뜻이다. 우리가 보통 많이 보아온 아기 천사의 귀여운 모습이나 혹은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성스러운 형상이 아니라 짐승과 인간을 합성해 놓은 듯한 형색에 몸체에 비해 얼굴만 기형적으로 큰 모습의 천사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마디로 그로테스크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웬지 연민과 서글픔 같은 것이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 천사에 대한 발터 벤야민의 생각은 이렇다.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 그곳에서 그 '천사'는 단 하나의 재앙만을 본다.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아가며 그것들을 그의 발치에 내던지는 재앙만을 말이다.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죽은 자들을 잠에서 깨우고, 산산조각이 난 것들을 다시 붙여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줄기 강력한 바람이 천국으로부터 불어와 그의 날개를 잔뜩 부풀리고, 그 바람이 어찌나 강력한지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이 강력한 바람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를 향해 그를 끊임없이 몰아치고, 그의 눈앞에서 폐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치솟는다."

벤야민은 이 천사를 역사의 천사로 해석한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천사의 발치 앞에 재앙만을 던진다. 사실 이 천사는 이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가? 그는 천국을 향해 날갯짓을 하지 못하고 하늘 높이 치솟는 폐허와 잔해만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밀려 간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강풍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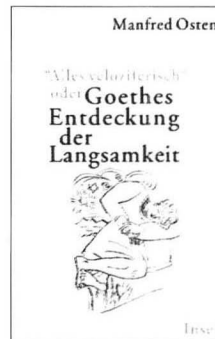
만프레트 오스텐은 이 책 <괴테의 느림의 미학 "Alles veloziferisch" oder Goethes Entdeckung der Langsamkeit>에서 바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그는 파스칼이나 베이컨, 홉스, 리히텐베르크 같은 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그러한 강풍의 원인이 인간들의 조급함과 진보를 향한 욕망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 다음 괴테의 <파우스트>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읽어가면서 조급함에 대한 괴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는 "괴테는 일찍이 파우스트 박사의 모습에서 그리고 파우스트가 '인내심이어 돼져라!' 하며 느리게 진행되는 모든 것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보았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파우스트는 이미 200년 전에 악마의 특성으로 알려진 그 성급함의 명예를 자발적으로 짊어 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괴테는 한 마디로 'veloziferisch(악마처럼 성급한)'라고 불렀다. 이것은

괴테 자신이 "성급함"을 뜻하는 라틴어 낱말 'Velocitas'와 '악마'를 뜻하는 독일어의 'Luzifer'를 엮어서 만든 말이다. 이 한 마디 말 속에 괴테의 사고가 집약되어 있다.

이처럼 "악마처럼 성급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친화력>에서는 주인공 오틀리에게 희생물로 전락하는데, 저자는 이와 같은 성급함을 피하려는 동양의 지혜를 <서동시집>에서 발견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보았던 파울 클레의 지나치게 큰 머리의 '새로운 천사'는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조급함으로 스스로 강력한 폭풍을 만들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문명비판적인 표현주의 화가 막스 베크만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해석하여 그린 14점의 독특한 삽화도 함께 실려 있다. **▶▶**



원제 <괴테의 느림의 미학 "Alles veloziferisch" oder Goethes Entdeckung der Langsamkeit>
저자 Manfred Osten
출판사 Insel(2003)